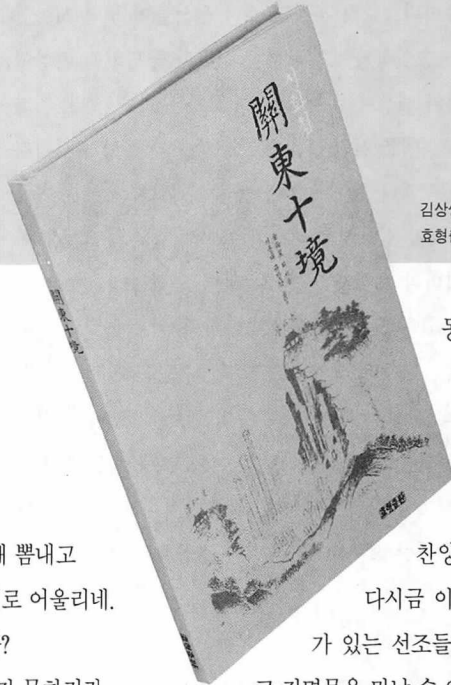


‘시서화 삼절’로 예찬한 관동의 승경

시화첩 《관동십경》을 읽고

심상대 | 소설가



김상성의 지음/서울대 규장각 옮김
호형출판/B5/126면/18,000원

明媚晴波弄百姿
雲容月意兩相宜
可但西湖西子似
到茲吾亦欲無詩

아리따운 맑은 물결 온갖 자태 뽐내고
구름 모습 달의 정은 둘 다 서로 어울리네.
어찌 서호의 서시만 같겠는가?
여기 온다면 나 또한 시를 쓰지 못하리라.

이 시는 강릉 경포대의 풍광에 대한 흥취를 읊은 체천 오수채(棟泉 吳遂采, 1692~1757)의 작품이다.

이는 직접 경포대에서 쓴 시가 아니라 관동십경(關東十境) 가운데 경포대에 관한 사정 김상성(士精 金尙星, 1703~1755)의 춘순영시(春巡詠詩)를 차운(次韻)해 김상성이 엮은 열 점의 그림 중 경포대도(鏡浦臺圖)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이다. 허나 오수채는 마치 경포대에서 경포호와 동해를 굽어보고 있는 듯, 호숫가 밤하늘에 걸린 달과 달을 비껴가는 구름의 정경을 그려내며 시인의 심중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동지방의 절경 예찬한 시화첩

최근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소주 광고에는 ‘강릉산수갑천하’(江陵山水甲天下, 강릉일대의 산과 물이 천하의 으뜸이라)라는 문안이 크게 걸려 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인용했다는 이 문안처럼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의 풍광은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전체가 나무랄데 없는

동양산수화라 할 만하다. 이 지방의 빼어난 절경은 이미 송강의 <관동별곡>을 통해 익히 찬양되고 회자됐지만, 다시금 이 지방과 깊은 연고가 있는 선조들의 가창(歌唱)으로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호형출판에서 출간한 《관동십경》은 이런 가창을 통해 관동지방의 승경(勝景)을 전시하면서, 아울러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시화첩을 꾸민 선조들의 풍류와 정신세계를 엿보게 한다. 《관동십경》은 우리나라 18세기 시화첩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18세기 중엽 관동지방의 승경 열 곳을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에 예순여섯 수의 제영시(題詠詩)를 덧붙인 시화첩이다. 제작 경위는 조선조 중기의 문인 김상성이 1746년 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여러 고을을 순시할 때 화원에게 경치를 그리게 하고, 그 화첩을 친한 이들에게 돌려보게 한 후 시를 받아 1748년(영조 24년) 경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전하는 시화첩의 대부분이 ‘진경문화’를 주도한 노론 문인들의 것인 데 비해 이 시화첩의 제영시인들은 모두 18세기 중엽 소론(少論) 문사들로, 제작자인 김상성과 앞서 든 오수채를 포함해 여덟 명이다.

그림은 모두 작가 미상으로, 전통적인 산수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회화식 지도의 수법을 수용하는 한편, 풍수적인 관점에서 실경을 재구성

하고 있다. 건축물과 자연물의 명칭이 표기되고 다양한 시점이 혼재된 점 등이 이런 특성을 말해 준다. 대부분의 그림이 부감법으로 화폭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며 산수의 물상을 독창적인 관점에서 화려하고 흥미롭게 나타냈다. 이런 점은 당대의 대표 화가인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의 그림 세계와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관동십경》은 기존 시화첩을 이루는 그림만이 아니라 시를 적은 행초체(行草體)의 붓글씨를 그대로 싣고, 원문을 번역한 시를 곁들였다. 이로써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의 구현양상을 살펴보는 의미도 있을 뿐더러 조선문화가 절정에 이른 18세기 당대 문인들의 시와 글씨, 그리고 화가의 그림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함께 한다.

관동지역과 밀접한 인연 맺은 소론문사

외람되지만 잠시 필자 자신의 이야기를 첨가해야겠다. 필자의 고향은 현재 강릉통합시의 최남단인 옥계면이다. 이곳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동해시 망상동인데, 본래는 옥계면과 마찬가지로 명주군에 속한 묵호읍 망상리로, 필자의 외가 강릉 김씨 집성촌이 있다. 되지만 삼류 글쟁이인 필자와는 달리 소식적부터 글공부를 해 지금까지 줄곧 지역의 문화인사로 활동하고 계신 외숙께서는 최근 숙원사업 하나를 완성했다. 일제시대까지 존속하며 지역민들이 배향했던 약천 남구만(藥泉 南九萬, 1629~1711) 선생의 사당을 재건하고, 선생의 시조 ‘동창이 맑았느냐 ...’가 이곳에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그 시조의 공간적 배경인 근방을 문화 학습장으로 지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사당이 있었던 자리 앞에 위치한 약천도 다시 정비해 돌레에 수양버드나무를 심었으며 근처 고속화도로 변에는 약천 남구만 시조비도 건립했다. 외숙께서는 당신의 학문적 계통에 대해서는 “소론과 가깝다”고 말하고, 그 연유를 한때 향리에 머물렀던 약천 선생이 근동에 뿌리내린 학문적 전통 때문이라 설명하곤 했다.

필자가 굳이 외숙까지 들먹이는 까닭은 소론문사가 《관동십경》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론문사들이 이 지방과 깊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약천 남구만도, 한때 이곳에 유배돼 잠시 머무는 동안 근동에 자신의 학문적 자취를 남겼다. 이후 《관동십경》을 제작한 김상성도 강릉 김씨로 역시 소론에 속했다.

소론은 서인에서 분파된 조선조의 봉당 가운데 하나다. 1623년 인조반정 이후 분파됐던 서인은 효종·현종 연간에 송시열(宋時烈)을 중심점으로 다시 뭉친다. 소론은 이와 같이 재건·규합된 서인에서 숙종 때 분파된 당파다. 분당의 계기는 1680년(숙종 6년) 당시 남인인 영의정 허적(許積)의 유악남용사건(油嶽濫用事件)과 서인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이 발설한 허적의 서자 견(堅)의 역모옥사로 남인이 대거 숙청된, 이른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뒤에 정권을 잡은 서인 사이에 남인 숙청에 대한 의견으로 인해 발생한 노소장간의 대립으로 비롯됐다. 즉 1683년 노장파인 김익훈 등의 과격한 남인 탄압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소장파 한태동(韓泰東) 등이 김익훈 등을 탄핵하는 소를 올림으로써 발단됐던 것이다.

이 대립은 송시열과 제자 윤증(尹拯)의 사감으로 불화가 격화됐는데,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장파를 노론, 한태동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를 소론이라 칭하게 됐다.

담백한 시취와 꾸밈없는 기상 스며 있어

보건대 소론은 처세에서 대체로 휴머니스트의 면모를 보인다. 이른바 서인은 1762년(영조 38년) 장헌세자(莊獻世子)의 폐위와 아사사건을 계기로, 장헌세자를 동정하는 시파(時派)와 영조의 처사를 옹호하는 벽파(僻派)로 양분됐다. 소론은 당연히 시파에 속했다. 소론의 거두로 지칭되는 남구만도 대단한 휴머니스트였다. 그가 한때 필자의 고향 인근에 거처했던 이유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득세한 남인에 의해 강릉으로 유배됐던 인연 때문이었다. 기사환국은 1689년(숙종 15년) 숙종이 혼인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나이 어린 인현왕후를 두고 후궁 소의 장씨(昭儀張氏) 소생을 원자(元子)로 정호(定號)하는 문제를 계기로, 당쟁을 이용한 처세에서 간고했던 숙종과, 후궁 장씨의 주

변 인물과 결탁한 남인에 의해 노론을 위시한 서인이 대거 실각한 사건이었다. 이때 유배당했던 남구만은 이듬해 풀려났고 1694년 갑술환국으로 남인이 몰락하며 다시 영의정에 기용됐으나, 1701년 희빈 장씨의 처벌에 대해 중형을 주장하는 노론에 맞서 경형(輕刑)을 주장하다가 숙종이 희빈 장씨의 사사를 결정하자 사직, 낙향했다.

이런 휴머니스트의 후계인 소론 문사들이 꾸민 시화첩 인지라 《관동십경》은 그 담백한 시취와 꾸밈없는 기상이 마치 동해의 해풍에 흔들리는 한 그루 다복솔 같다. 시화첩이 제작된 영조 24년 경은 노론과 소론의 탕평이 이뤄져 균형을 이룬 때다. 탕평책으로 안정기를 맞자 소론 지식인이었던 제작자 김상성을 위시한 이 시화첩의 묵객들은 한껏 태평시대의 풍류생활을 펼쳐보이고 있다. 세간에서는 흔히 관동의 승경을 관동팔경이라 한다. 이는 통천의 총석정(叢石亭), 고성(高城)의 삼일포(三日浦), 간성의 청간정(淸澗亭),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강릉의 경포대(鏡浦臺), 삼척의 죽서루(竹西樓), 울진의 망양정(望洋亭), 평해의 월송정(月松亭)을 말하거니와, 거기에 흡곡의 시중대(侍中臺)와 고성의 해산정(海山亭)을 더해 관동십경이라 한 것이다.

귀소본능 자극하는 가객들의 낭만

필자로서는 이 책을 통해 고향 산천을 일별하는 기분이다. 수시로 지나다니며 오르내리고, 철없던 시절에는 여름철이면 막걸리를 마시고 잠을 자기도 하던 경포대와 죽서루는 말할 것도 없이, 낙산사는 지금도 고향을 찾을 때면 수시로 찾아 가는 곳이다. 이전에는 경포대나 죽서루 난간에 비켜서서 환호작약하는 외지인의 감탄을 대할 때마다, 저들이 행복한 사람인지 이곳에 늘 살면서 별 감흥을 가지지 못하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깊이 의심하기도 했다. 소설 공부를 한답시고 떠돌던 시절에 필자는 한동안 울진에서 지냈다. 그때에도 역시 망양정이며 월송정의 헌함(軒檻)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막걸리를 마시곤 했다.

서울 생활에 찌든 지금, 이 책을 펼쳐 그림을 보고 시를 읽으며, 이제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 뿌리치고 일어나고 싶은 욕심이 간절하다. 아마 오래지 않아 그들을 물고 그곳을 다시 찾는다면 이 책을 들고 가서 선조의 시를 낭송하면서, 고향산천의 풍광만이 아니라 옛사람들의 낭만을 함께 체득하도록 해야겠다. 그때는 아마 환호작약하는 관광객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보다도 자신이 여러 면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책을 덮으면서,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첩자(帖



《관동십경》에 나오는 그림은 모두 작가 미상으로, 산수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회화식 지도의 수법을 쓰고 있다. 사진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에서 바라보는 구도로 그려진 <낙산사도>.

子)를 엮은 선조께 올릴 몇 가지 감상을 정리하려 한다. 우선은 필자의 필설로는 여러 어른의 멧에 흠뻑 취한 감상이 제대로 전해질 방법이 없다는 점에 통곡한다. 이 난삽한 몇 줄의 글로 인사를 다하는 후대인의 몰염치를 용서하시고, 아울러 저의 진정을 흠향하시기를 앙망하는 바다.

또한 이 책을 보고 읽을 때나, 이 책의 바탕이 된 첩자를 생각할 때 필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 가지에 대해 말하겠다.

첫째는 선인들이 마음껏 누리고 노래했던 그 강산과 풍광을 우리로서는 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동십경》에서 진경을 드러내 보였던 열 곳의 경승 가운데 흡곡의 시중대나 통천의 충석정, 고성(高城)의 삼일포와 해산정은 지금 우리로서는 관광할 수 없는 곳이다. 우리는 분단 조국의 국민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이 필자로 하여금 피를 토하는 아픔을 느끼게 했다. 두번째는 나머지 반조거리 조국에 남은 경승도 대부분 시루에 굴복한 모양으로 그 정자와 주변 풍광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두 군데는 관광지로 지정된 탓에 입장료를 내야만 둘러볼 수 있는 박제물이 됐을 뿐더러, 그렇지 않은 곳이라도 시멘트 건조물로 다시 지은 조악한 형태로 재건돼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는 분명 선조의 휴머니즘과 로맨티시즘을 경원(敬遠)한 후대인의 죄과다. 나는 이 또한 슬퍼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자로 하여금 피를 토하게 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고루과문'과 '우몽등초' 함이다. 소위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이 책에 실린 그 한 구절의 기상과 낭만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또한 그런 글을 쓰려는 욕심을 가져보지 못한 자신이 밋고 안타까워 서러울 뿐이다. 이것이 슬픈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다. 필자로서는 오래 부끄러워하며 선조께서 오직 그 사죄의 진정을 흠향하시기만을 앙망할 뿐이다.

그런 사죄의 마음으로 이 책에 실린 가객 태백(太白, 생몰연대 미상)이 흡곡 시중대를 노래한 시 한 수를 읊으면서 미옥한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湖海胸襟一拓之
鶴林名勝此臺奇
何時突兀看高棟
可使關東八景卑

호수와 바다에서 마음 한껏 열어보니
학림(흡곡의 다른 이름)의 명승에선 시중대가 기묘해라.
어느 때야 우뚝 솟은 누각을 보아
관동팔경을 낮춰 볼 수 있으랴?